

▲ 번역의 1차적 목적은, 원전의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면서도 원문에 충실한 우리말 형상화가 되어야 올바른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현장(600~664)스님도 '5중 불번(不翻)'이라 하여 다섯 가지의 경우는 번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전의 표현은 한 가지인데 옮기는 말이 여럿인 경우나, 원전이 가리키는 사물이 이쪽 언어권에는 없는 경우. 또는 외래어처럼 이미 원어가 이쪽 언어에 편입된 경우, 비밀신주처럼 오의(奧義)를 담고 있는 경우, 옛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에서 원전을 그대로 쓰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번역이라는 일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전을 되도록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말에 가깝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의 언어 감각까지 포괄한다면, 각색이 가까운 과감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차후의 문제입니다. 먼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하겠지요.

— 애기가 너무 번역이라는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역경의 중요성이나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광생을 역경이라는 외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 은사하신 운허 스님과의 인연이 곧 역경과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출가 전에 한학을 좀 했었는데, 그것을 아는 분들이 당연히 운허 스님의 상좌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중이 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한국 불교의 분위기는 참선이나 기도 같은 것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운허 스님께서 '경학을 하

— 그런데 아쉽게도 한글대장경을 포함하여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경전들이, 번역된 말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전 열심히 읽는 것도 공덕” “역경 인력 양성 관심 가져야”

▲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건 번역 수준이나 기술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역도 상당히 있고요. 이유는 꽤 여러가지예요. 경전의 뜻 자체가 다중적이어서 역경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축약된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해서 비롯된 부분도 있습니다.

는 것도 수행의 길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의 자연스럽게 역경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또 주변머리없는 성격도 역경이라는 외길을 걷게 하는 데 힘이 됐을 겁니다. 흔해빠진 잡기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우리말로 된 대장경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집을 짓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 차라리 안 지었으면 새로 짓기가 더 수월할 텐데 하는 소리를 들을지, 이렇게라도 내집이 생겼으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집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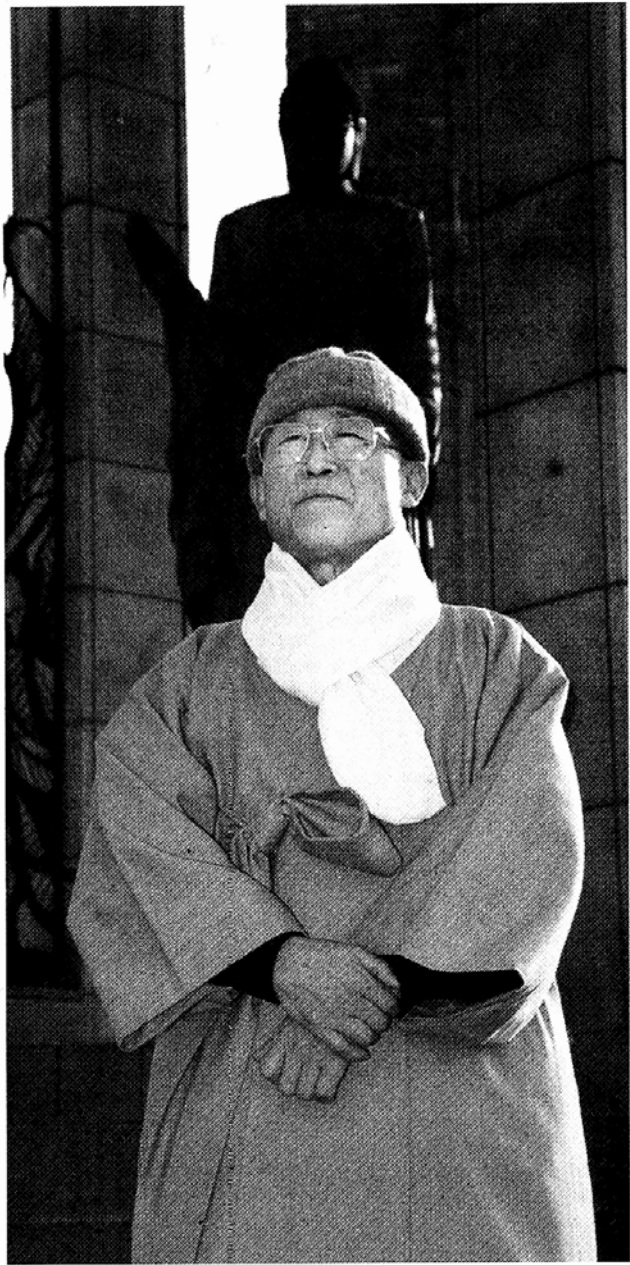
— 번역 문제를 거론할 때, '번역은 번역이다'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한글대장경의 번역에 있어서도 원칙 같은 것이 있을 법한데요.

▲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는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한자어를 다 버리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 지나친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치고 보완하는 건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젊은 세대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경전의 정수를 가려 뽑는 작업 등 '한글대장경' 원간 이후의 작업을 구상하시는 월운스님.



◊동국대학교 교정은 동국역경원의 마당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월운스님의 일상 언어는 세대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 앞으로의 역경 사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강사들을 키우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류 검색 작업과 함께 대장경의 내용 중에서 정수만을 가려 뽑아 내는 작업도 해야겠지요. 경학 쪽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불교학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 불교의 근본 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부활하게 할 뿐 아니라, 불교학의 밑거름을 하는 역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 '포교 3년이면 밀천이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대한 소양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 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경 공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도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대장경의 원간은 불보살의 가피가 모든 중생에 두루 미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한자 해독에 대한 부담 없이) 평범한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점을 명심하시고 경전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 펼쳐질 역경원의 사업에 후원자 노릇도 좀 해 주시고요. 한달에 천원 정도의 후원금이라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공덕을 만생명과 두루 나누는 일이기도 해요.

귀하신 말씀에 머릿속이 감사드리고 역경원을 나서는 순간, 문득 '역경삼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스님의 지난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대담=윤제학 부장 (yunjih@buddhapia.com)

### 효림스님이 쓰는 이력스님

#### ■ 후덕한 주지 혜성스님

“따르릉 따르릉...”  
조용하기만 한 내 토굴에 새벽같이 전화벨이 울렸다. 부재중 녹음상태로 되어있는 전화기에서 굵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기 봉국사인데 방에 있으면 봉국사로 전화 좀 하지, 말자.”  
음성을 들으니 봉국사 주지스님이었다. 급하게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만 전화가 끊어졌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새벽에 노보살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성남에 자리한 봉국사는 춘성 노스님의 상족(上足)인 혜성(慧星) 주지 스님과 이번에 돌아가신 노보살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주지 스님이 처음 봉국사로 왔을 때는 상남사가 생기기도 전이고 절은 형편없이 초라한 오두막 같은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봉국사도 지금은 그해 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는 해재철이 되면 만행을 하는 스님들이 많았다. 그 만행을 하는 스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남의 봉국사였다. 절은 초라했지만 주지 스님이 봉국사로 오자 옛날 망월사 춘성 노스님의 회중에 살던 기라성같은 구암잡자들을 위시해 많은 스님들이 봉국사 객사로 모여들었다. 많을 때는 20~30명까지 북적일 때도 있었다. 해재철이 되면 비좁은 객실에 평균적으로 열 대여섯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다.

#### 해제철엔 선객 북적 쌀독 열어놓고 사는 절

성남시가 형성되고도 봉국사는 신도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다. 성남이란 곳이 서울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뿌리없이 떠돌다가 쫓겨온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곳에 있는 사찰이니 쌀 살림이 가난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찰에 해제철만 되면 스님들이 북적되어 공양미를 충당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한번도 스님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니 스님들이 유독 봉국사에 많이 모이는 것은 주지스님의 내색하지 않는 덕(德) 때문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지스님의 후덕한 가풍을 묵묵히 뒤에서 받침을 해 주셨던 분이 이번에 돌아가신 노보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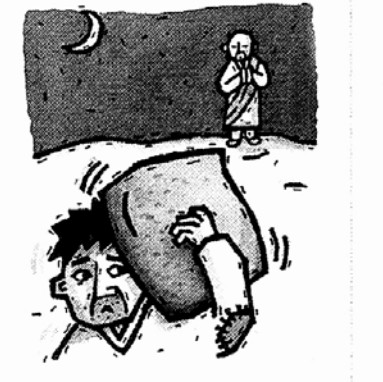
이런 일화도 있다. 어느해 겨울이었다. 그 날 나는 시내에 불일을 보러나갔다가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울타리도 없는 절 도랑으로 들어서는 데 마당을 가로질러 웬 새가 어깨에 부대 하나를 짊어지고 나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누구냐?”하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그 새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태연하게 “예, 죄송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쌀 좀 퍼가지고 갑니다.”하는 것이었다. 내가 더욱 놀라서 무어라고 말을 하려는데 그 새는 벌써 지팡이를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주지스님에게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쌀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말도 아울러 드렸다. 그러나 스님은 내 말을 듣고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였다. 같이 살고 있던 범용(지난번

에 이야기한 그 범용스님이 아님) 스님이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다가 또 쌀부대를 지고 나가는 사내를 만났다. “여보시오, 무엇 하는 사람이요?” “예! 배고픈 사람입니다. 쌀 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고를 받은 주지스님은 역시 아무 말씀이 없었다. 봉국사 주지 혜성스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간한 일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분이시다.

옛날에 무심한 선사의 심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시가 있다.  
“물감을 허공에 칠한들 허공이 물들며/ 칼로 물을 끊은들 물이 끊기랴/ 사람마음 안정됨이 물과 허공 같으면/ 무슨 물건 대한들 맑고 고을 있으랴(影筆描空空不染 利刀割水水無痕 人心安靜如空水 與物自然無怨謫)”

노보살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봉국사 신도들과 주지스님의 사제스님들과 스님의 문도 몇명과 노보살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다. 전화를 받고 내가 달려가자 주지스님은 당신의 사제인 해광스님과 같이 직접 염을 하고자 했다. 염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노보살님에게 계(戒)를 설했다. 옛날 석봉 노스님으로부터 받은 '법성화'에서 '화



그림·문병성

(華)자를 빼고 그냥 '법성(法性)'이라고 하는 불명도 내렸다. 이제 청신녀 법성화에서 다음 생애라도 수행자 법성이 되라는 뜻이다. 평생을 절에서 스님들과 같이 살아왔으니까 다음 생애는 출가 수행자로 살아 큰 도를 이루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고 장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우리들이 몸을 씻어드리고 염을 해드렸다. 영결식을 하는 날도 스님들이 관을 들었고 의식도 간단하게 반야심경 한편을 독송하는 것이 전부였다. 지극히 간결한 의식이었다. 바로 이것이 선객들의 법식이고 춘성 노스님으로부터 이어진 봉국사의 가풍이기도 하다.

자 이 정도면 봉국사에 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였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사실 불친절하게 하는 것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데 지나친 친절과 관심도 역시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객실에 여러 스님들이 모이게 되면 별별 일이 다 벌어진다. 재미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참아내기 힘든 일도 일어난다. 그런 것을 그저 무심하게 못 보며 지내는 그런 분이 바로 봉국사 주지 혜성스님이다.

## 說法 개인지도

단시일내에 대법사기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회술, 상담기법
-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 서예반 강좌 개설

연수안내

- ▶ 기간 : 2개월 과정
- ▶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수시접수
- ▶ 회원관리 : 정회원(매월 1회 모임) \*발표회
- ▶ 장소 : 분원수원 강의실
- ▶ 지도법사 : 문철승 박사 \*출장지도 가능합니다. \*

###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중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 목재 전문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염·방부·방충·방수)**

**효과**

1. 문화재 사찰, 동남부 주택, 한국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휘발성 방지)
2.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재(문, 창문, 창틀 등)
3.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무염도료를 하는 목재용(무염도)

**용도**

-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부패균 등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 방 염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원래미), 태풍 침입방지
- 통기성(Breathable) 양호 1회 시공으로 경미결장

**MOLD-MOVE (곰팡이 이끼 제거제)**

**효과**

MOLD-MOVE(곰팡이 이끼 제거제)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본 제품은 버섯, 진균류, 곰팡이, 이끼, 백선, 해코류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제품은 도시주변의 어떤 최초나 수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0% 자연 소멸되는 제품이다.

**용도**

- 목재, 문화재, 사찰, 한옥, 동남부 주택, 목조 주택, 나무(과수, 관상수)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대리석, 화장석, 모든 석재 등
- 기타 사용범위: 곰팡이, 황우도, 운동장, 수영장, 정수장, 테니스코트, 방파제, 항만, 부두의 장교 전리탈 등 이끼가 발생하는 곳에 적용함.

MOLD-MOVE로 곰팡이, 이끼 등을 제거하고 WOOD-SEAL 및 PRO-SEAL로 처리하면 수년간 재발생하지 않습니다.

15주년 경·향·하·우·정·패·이  
2000.2.24~29 COEX 3F · F411

동학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인대8/D 208  
TEL:02(3474-6232) FAX:02(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 대륙 황토방 · 황토주택

▲ 황토주택 ▲ 토굴 황토방

① 양질의 순수 황토만을 사용하여 시공  
② 전통 방식의 구들시공  
③ 풍부한 건축 경험으로 완벽한 시공

###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남2동 424-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 숙면, 쾌변 그리고 氣...

##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들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205 오크 1 101 싱글보로

### 들침대의 효능

- ◆취수를 반듯하게 고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몸매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뽀얀곳을 풀어줍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원천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원적외선(건강관선)의 풍부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 풍부한 원적외선을 안방에서 반 영구적으로 온 가족이 사용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 원적외선(건강, 생육관선)은 동식물을 발육시키고 인체내부로 직접전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 들침대구입시 특전 : 구입시 100만원 결제,전액은 2개월 무이자 분할, 제품가격 : 보로 89만원(5부), 침대 149만원(4부) \*현금판매

유통여의の家

## 氣 리빙스톤(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